

■ 브라질의 축제

김 한 철

브라질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축제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각 도시의 유명 클럽이나 바에서는 속옷도 내던지고 술 마시며 춤추는 그들만의 정열적인 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브라질의 축제는 역사적으로 또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모든 브라질 축제에는 기본적으로 춤과 술,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만의 열정이 강하게 표출된다.

1. 카니발(carnaval)의 역사



카니발 행렬



브라질 삼바 축제

세계 속에서 브라질이 가장 화려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바로 열정적인 무희들의 오색찬란한 카니발이다. 해마다 기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브라질의 여름인 2, 3월에 열리는 카니발 기간을 앞두고 텔레비전은 물론 브라질 전역이 그 준비로 들썩들썩한다. 카니발 기간이 되면 모든 회사와 상점이 문을 닫고 카니발의 분위기에 푹 빠져든다. 또한 이때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벼 카니발은 그야말로 브라질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 축제로 탈바꿈한다. 축제가 열리는 나흘 동안 브라질의 경제는 잠시 멈추고 음악과 춤, 거리의 행렬, 흥에 겨운 술자리가 지속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카니발은 16세기에 시작되어 수백 년에 걸쳐 형식이 바뀌다가 19세기 들어 그 형식이 정착됐다. 포르투갈에서 사순절 전에 사람들이 뒤엉켜 밀가루, 물 등을 던지며 술과 음식을 즐기던 엔트루두(entrudo)란 행사에서 유래하여 브라질로 건너왔다. 이 축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리듬 삼바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노동에 혹사당하던 시절 고통을 잊으려고 그들 특유의 가락에 맞추어 추던 것이었다. 집단적 댄스리듬이었던 삼바는 20세기 초반 도시화되면서 현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며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



카니발 무희

2. 카니발의 형태

1928년 최초의 삼바스쿨이 설립된다. 몇 해가 지나 삼바스쿨들의 경쟁형태로서 첫 공식 퍼레이드를 가졌고, 1960년대엔 관객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는 상업적 형태를 갖춘다. 1984년부터는 삼바스쿨의 행진만을 위해 지어진 야외 공연장, 삼보드로무(sambodromo)에서 카니발이 벌어진다. 삼보드로무는 일반 도로에 계단식 관중석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최대 8~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그 화려한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이다. 카니발은 브라질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은 여느 다른 지역에 비해 화려하고 규모가 크다.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의 대성공과 함께 삼바스쿨은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됐으며 상파울루에서도 같은 형식의 카니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삼바스쿨의 퍼레이드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시기에 따라 환경문제, 브라질리아 건설 기념, 월드컵 등 매년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삼바스쿨의 경쟁에서는 행진의 조직성, 이야기의 짜임새, 음악성 등의 각 요소에 대한 심판들의 점수를 종합해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된다. 사실 카니발에 참여하는 삼바스쿨의 구성원들은 우승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연습하고 각각 몇 달치 임금을 모아 의상을 구입한다. 경비는 참가자의 참가비와 각종 광고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낮은 순위로 경기를 마치면 후원이 끊기므로 참가자들은 매우 비장하게 대회를 치르고,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각 점수 하나 하나에 삼바스쿨 관계자와 참가자는 희비가 엇갈린다. 우승한 삼바스쿨은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잊고 또다시 그들만의 카니발을 즐기게 된다.

한편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Bahia) 주에 위치한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였던 살바도르에서 벌어지는 카니발은 삼바스쿨의 경연 형식을 띤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이나 상파울루 카니발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스피커를 장착한 거대한 크기의 트럭 위에서 유명 가수와 밴드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아췌(axé)나 포호(forró), 올로둥(olodum) 등의 음악 공연을 벌인다.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그 트럭의 뒤를 따라가며 맥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자유롭게 서로 뒤엉키는 모습을 연출한다. 북동부의 헤시피에션 폴카에서 유래한 프레부(frevo)를 추는 것으로 유명하다.

카니발은 사순절 직전에 행해지는 종교행사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브라질

문화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카니발의 의미와 영향

브라질 사회에서 축제는 역사적·종교적 개념을 넘어 현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됐다. 그중 가장 유명한 카니발은 포르투갈을 통해 들어온 가톨릭 문화와 원주민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흑인 문화가 합쳐져 탄생했다. 인종 전시장이라 할 만큼 수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브라질에서 국민들의 일체감과 국가 통합의식을 나타내는 초국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사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카니발이 브라질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먼저 카니발이 브라질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이라면 이 기간 동안 인종, 종교, 성별의 구분 없이 또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한데 어우러져 즐거움으로써 사회적 욕구 불만을 분출하고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과 왜곡된 계급구조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한 중계권료나 축제장면의 비디오, DVD 제작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국가 전체는 들뜬 분위기이므로 총기 소지나 마약 복용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자주 발생하고 치안이 더욱 불안해져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카니발이 끝나고 나서 청소부들이 청소하면서 시체까지 치운다는 섬뜩한 말도 나돌 정도다. 또한 전라로 바디페인팅을 하거나 가슴을 노출한 무희들이 자주 등장하므로 선정성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상업주의는 자극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선정적 장면을 화면에 담으려 한다. 이는 곧 시청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광고수입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담이다. 카니발 기간 중 한번은 밤에 외출했다. 한 브라질인 아저씨가 술에 약간 취해 길을 가던 내게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걸고 아주 친한 척했다. 그때 다들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게 어찌면



페스타 주니나 복장

자연스럽다고 인식했기에 필자 또한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다. 그가 내게 어깨동무를 한 순간 나도 그의 허리에 손을 댔는데 딱하니 총이 잡혔다. 다행히 그날 아무 일도 없었지만 호신용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술과 마약으로 인해 흥에 취해 있다면 어디서 우발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카니발 기간 중에는 미리 마트에서 술을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 놓고 편안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화려한 삼바스쿨의 행렬을 보는 사람도 많다. 채널마다 각기 다른 지역의 카니발을 중계해 주니 자신의 구미에 맞는 카니발을 골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집에서 즐기는 카니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4. 6월 축제 페스타 주니나(Festa Junina)

브라질 민속 축제에 속하는 이 축제는 주로 지방에서 하는 축제다. 포르투갈 식민 시대에 브라질에 들어왔으며 비를 내려 주고 농사를 유지시켜 주는 데 대해 신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로 행하는 축제다. 성안토니우(São

Antônio), 성주앙(São João), 성페드루(São Pedro)의 축일이 몰려 있는 6월이 되면 곳곳에서 이 축제가 열린다. 기차놀이를 하고 상품을 낚는 낚시놀이를 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등 온갖 종류의 놀이가 가득하다. 포도주에다 사탕수수 증류주 카샤사(cachaça)를 첨가하여 끓인 켄텅(quentão)이라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가지 특징은 여느 축제들처럼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최대한 촌스럽게 입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옷은 시골 농부를 상징하는 허름한 밀짚모자와 체크무늬 셔츠다. 학교에서 하는 6월 축제에선 보통 두 명씩 짝을 이뤄 춤을 춘다. 기본적으로 어린 남녀 아이들은 촌스러운 옷을 입은 채 뺨에 주근깨와 빨간 볼터치를 그려 넣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축제에 참가하면 번호표를 나눠 준 다음 축제가 끝날 무렵 추천한다. 당첨되면 장난감이나 인형을 상품으로 받는다.

5. 새해맞이 축제 헤베이용(Réveillon)

브라질에서는 12월 31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헤베이용이라는 새해맞이 축제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에서 이뤄지는 헤베이용이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새해 첫날 0시를 기해 거대한 불꽃놀이가 연출된다. 보통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불꽃놀이를 지켜보며 새해 희망을 기원한다.

해변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시민들은 손에 맥주나 샴페인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한다. 한 해 딱 하루뿐인 이 날을 기념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해변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한쪽에서는 흰색 옷차림의 시민들이 줄 지어 칸돔블레(Candomblé) 의식을 진행한다. 칸돔블레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에 로마 가톨릭과 남미 원주민 문화가 혼합된 아프리카계 브라질 종교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마쿰바(Macumba)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옷감을 사용한 의상을 착용하며,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바다의 여신 이에만자(Iemanjá)에게 새해의 소망을 빌면서 꽃을 바다에 던진다. 이 같은 풍습이 널리 퍼져 오늘날에는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 날은 전통적으로 흰색 옷을



새해맞이 축제 헤베이옹(Réveillon)

즐거워 입을 다물지 않는다.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코파카바나 해변에 위치한 호텔들의 참가와 리우 데자네이루 주 정부의 지원으로 코파카바나의 새해맞이 축제는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행사 가운데 하나가 됐다.

6. 그 밖의 축제와 파티

그 밖에 브라질의 널리 알려진 성대한 축제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 및 칸돔블레 종교와 관련된 바이아 주의 봉핑(Bonfim) 축제, 상파울루 주·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마라냥(Maranhão) 주 등에서 벌어지는 지비누(Divino) 축제, 항구가 있는 대다수 도시에서 1월 1일 열리는 보아비아쟁(Boa Viagem) 축제, 브라질의 수호신 노사세노라아파레시다(Nossa Senhora Aparecida) 축제, 아마존의 마나우스 지역에서 가장 큰 보이붐바(Boi Bumba) 축제 등이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도 브라질 사람들은 파티를 상당히 좋아한다. 파티라는 뜻의 낱말 페스타(festa)는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서는 도저히 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파티란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함께 모여 시간을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페스타’라는 이름하에 철저히 주말을 즐긴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자그마한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브라질식 바베큐 슈하스쿠(churrasco)와 차디찬 맥주가 준비됐다면 그들만의 편안하고 충분한 파티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